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에 대한 비교 연구*

- 목록규칙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Focusing on the Cataloging Rules

백 지 원 (Ji-Won Baek)**

초 록

본 연구는 목록규칙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영역의 본질적인 특성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두 영역을 대표하는 목록규칙을 선정하고, 도서관 목록규칙과 사회적 목록규칙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각각의 본질적 특성, 목적, 기반 원칙, 전개 발전 방향, 목록규칙 작성의 주체, 존재와 작성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목록규칙을 분량과 구성, 총칙의 내용, 개인과 저작을 중심으로 한 개체의 속성과 관계, 주제 목록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여 두 영역 목록규칙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목록규칙의 목록 작성 단계별 적용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정보조직 생태계를 전망하고 정보조직의 전개 및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and overall situation of cataloging ecosystem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site cataloging. For this, an extensive research and analysis was conducted concerning comparative analysis on cataloging rules of the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As a result, not only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ut also interrelationship between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was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aloging rules were analyzed by the stage of cataloging in the library and the social cataloging environmen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library and social cataloging. The result may have significant meaning in prospecting cataloging ecosystem and planning further study on facilitating interaction and leading knowledge organization development.

키워드: 도서관 목록, 목록 규칙, 소설 목록, 사회적 목록
library catalog, cataloging rules, social cataloging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B5A07047326).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w_baek@naver.com)

논문접수일자 : 2015년 11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2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221-244,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4.22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통적인 도서관의 정보조직에서는 1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분류체계와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목록규칙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등 특유의 오랜 전통이 현재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문헌정보 분야 고유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Web 2.0, Library 2.0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조직 분야에서도 이용자의 참여로 목록 작성과 분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회적 목록(Social cataloging)'이 생겨나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목록은 읽은 책에 대해 기억하고, 읽을 만한 새로운 책을 찾고, 내가 읽고 관심 있는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책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다(Spalding 2006).

이러한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은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저작을 대상으로 한 정보조직 활동이 핵심이며, 이는 이용자의 지식 정보 접근에 기반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도서관 목록은 표준성과 공용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사회적 목록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영역간의 차이가 있다. 사회적 목록은 암묵적으로는 도서관 목록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목록 작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협력적으로 실현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요소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영역 간에는 특히, 정보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조직 표준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서관의 정보조직 도구는 권위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주도로 섬세하게 개발되고 개정되며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사회적 목록에서는 정보조직의 표준과 규칙이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작성되고 적용 여부도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목록의 규칙은 매우 느슨한 수준으로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이 정보조직 활동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공통점에 주목하고, 두 영역을 특히 목록규칙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두 영역 각각의 개별적인 이해를 높이고, 두 영역의 유사성과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각 영역의 향후 발전 및 상호 협력·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정보조직 두 영역의 특성과 상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목록규칙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두 영역에서 목록규칙이 생성,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목록규칙의 분석 대상으로는 국제적인 표준 개발과 적용을 선도하는 최신 북미 표준인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를 선정

하였고, 필요에 따라 AACR2(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와 한국목록규칙(KCR)을 참조하였다.

사회적 목록의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소개된 국내외의 사회적 목록 사이트 26개를 파악하였고, 그 중 사이트가 운영 중인 사례 21개에 대하여 목록규칙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목록규칙이 존재하는 사이트는 Librarything(LT)과 Goodreads(GR)가 있었다. 이외에도 Shelfari는 사서와 편집자 그룹(Librarians & Editors group)이 존재하며, 이들이 편집 지침(Editing Guidelines)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목록규칙으로 간주하기에는 양적이나 형식적으로 미미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국내 사이트의 경우 2~3개의 사회적 목록 사이트가 존재하였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LT와 GR은 사회적 목록으로서 가장 오래인 10년 내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목록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회원과 목록된 장서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사이트는 목록규칙이 존재하고 역사와 규모의 측면에서 사회적 목록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사회적 목록 사이트나 규칙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분석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 2015년 10월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기별로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논의에 그 시기를 함께 밝혔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회적 목록의 목록규칙으로는 LT의 wikithing, helphthing 중 Common

Knowledge에 관한 지침, 저자의 식별(Author disambiguation), 저작 결합(Book combining), FAQ에 나타나는 태그의 결합(Tag combining)에 대한 의견 공유 등 사이트 전반에서 목록규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24개의 규칙으로 정리하였다. GR에서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서 매뉴얼에 제시된 17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목록규칙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선행연구

도서관의 정보조직 영역에서 목록규칙은 오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으므로 목록규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목록규칙의 역할을 해 온 AACR의 최신판에 해당하는 RDA라는 새로운 목록규칙이 발표된 2010년 전후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RDA 발표 초기에는 RDA의 직접적인 적용과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RDA의 제정 배경과 특성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박진희 2009a, 2009b), RDA를 반영한 한국목록규칙 개정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김정현 2013; 이미화 2010, 2011a, 2011b, 2012)도 진행되었다.

RDA의 본격화와 더불어 RDA의 개념적 근간이 되는 FRBR의 개체 중심적 사고와 이용자 과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RDA에서 개발의 목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용자 과업에 대해서는 RDA에서 어떻게 자원을 개체와 속성, 그리고 관계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RDA가 이용자과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분석한 연구(이경호 2012)가

있다. 외국에서도 FRBR의 이용자 과업에 대한 분석(Harej and Žumer 2013), FRBR의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는 RDA 요소에 대한 분석(Hider and Liu 2013), RDA 기반 모델에서의 이용자 과업에 대한 연구(Taniguchi 2013) 등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근래에는 KCR에 RDA처럼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각종 목록규칙을 비교 분석한 연구(안서현, 이창수 2014)와 외국의 RDA 테스트 수행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새로운 목록규칙 도입을 위해 테스트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미화, 현문수 2015) 등 보다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목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태그에 집중되어 있다. 태그 작성에 관한 규칙의 측면에서 이성숙(2008)은 폭소노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그를 최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태그 부여와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서를 대상으로 한 태깅 문화 자체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태그의 규칙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초기의 연구에서 거의 확장되지 못했다.

도서관에서의 웹 2.0 문화의 의미를 분석한 Joseph(2014)의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2.0의 참여 문화는 전문가에 의해 생성되고 축적된 콘텐츠의 소비 보다는 상호작용과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서관은 단지 지식을 조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며, 참여의 기술과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적인 담론 뿐 아니라 주변적인

담론을 위한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적 목록 특유의 가치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은 목록규칙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서지기술의 강화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 목록은 주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태그의 기능성 위주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목록을 정보조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더욱이 사회적 목록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목록규칙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초기 연구이면서, 도서관 목록규칙과 사회적 목록규칙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목록규칙의 개념과 발전

2.1 목록규칙의 발생

도서관에서는 정보의 검색과 접근을 위한 도구로 객관성,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조직을 위한 각종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목록계에서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1998년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ICP(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2009)와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2010)의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RDA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한편, 사회적 목록은 참여하는 개인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서재 만들기, 사회적 네트워킹 등 각기 다양한 주안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도와 활동이 무엇이든 그 기반은 목록 작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목록'이라고 불린다. 사회적 목록 중 LT와 GR의 경우는 역사가 쌓이고 회원과 장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나름의 목록 규칙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자원의 기술과 접근을 위해 필요한 개별 규칙이 계속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LT의 경우 사이트를 시작한지 2년여 만인 2007년 10월 10일에 창업자인 Tim Spalding이 제시한 규칙 3가지로 목록 작성에 관한 일반 원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그에 대해 댓글이 쌓이고, 또 목록 작성과 관련된 사안별로 각종 도움말과 안내 등이 쌓이면서 도서관의 목록규칙과 같은 내용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2.2 목록규칙의 목적

도서관 목록규칙의 목적은 목록규칙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나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두고 선언적으로 정의된다. RDA의 경우 “자원의 발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에 필요한 일련의 지침과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DA 0.0). 또한 RDA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는 FRBR와 ICP에서 정의한 다양한 이용자의 과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RDA에서 정의한 목록규칙의 목표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데이터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의 과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

능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포맷, 매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잘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RDA 0.4.2).

반면, 사회적 목록에서는 처음부터 설정된 특정한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우며, 사회적 목록의 목적을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목록에서는 정보에의 접근은 물론, 개인의 가상 서재 만들기 과정에서 얻는 개인적인 만족과 즐거움, 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 등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

LT의 경우 목록규칙이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목적 또한 명시된 바 없다. 목록규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GR의 경우에도 목록이나 목록규칙의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다.

2.3 목록규칙의 기반 원칙

도서관계에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가 서지레코드, 전거레코드, 주제전거 레코드 각각이 수행해야 할 기능적 요건을 정의한 FRBR,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S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Data)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목록 관련 데이터의 기능을 정밀하게 정의하고, 목록 데이터가 그러한 기능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현행 도서관 분야의 대표적인 목록규칙인 RDA는 이러한 개념적인 원칙과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RDA의 원칙은 차별성, 충분성, 관계성, 표

〈표 1〉 도서관 목록의 원칙

목록 원칙*	내용
목록 이용자의 편의와 관용법 (ICP 2.1 & 2.2) (RDA 0.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작성 및 접근을 위한 이름의 제어형식 결정은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과 접근에 사용된 어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휘와 일치해야 한다.
표현성과 정확성 (ICP 2.3 & 2.4) (RDA 0.4.3.4 & 0.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에서의 개체나 이름의 제어형식은 개체 자체를 묘사하는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기술 대상인 개체는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충분성과 필요성, 중요성 (ICP 2.5 & 2.6) (RDA 0.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과업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고 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의 데이터 요소와 접근을 위한 제어된 형식의 이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요소는 서지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성 (ICP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안이 있다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야 한다. (즉, 최소 비용 혹은 가장 단순한 접근방식 고려)
일관성과 표준화 (ICP 2.8) (RDA 0.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접근점의 작성은 가능한 한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서지데이터와 전자데이터의 공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통합성 (ICP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한 기술 및 모든 유형의 개체에 대한 제어형 이름은 가능한 공통의 규칙에 기초해야 한다.

* Svenonius(2000), ICP(2009), RDA(2010)

현성, 정확성, 속성의 표출, 일반성, 통일성 등이 다(RDA 0.4.3). 이러한 RDA 목록 원칙의 기반은 Svenonius(2000, 68)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hoff 2002, 49-50). Svenonius의 원칙을 중심으로 ICP(2009)와 RDA에서 제시된 목록 원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 도서관의 목록은 충실하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최대한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AACR2와 같은 이전의 목록규칙에 비해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목록의 원칙으로 보다 적극적,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목록규칙의 기반 원칙은 명시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특정 원칙이나 기반 모형이 있다기 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기본 가치 위에 다양한 규칙이 자생적, 귀납적으로 형성되

어 나가고 필요에 따라 갱신된다. 단, 사회적 목록은 도서관의 목록규칙이라는 참조할만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

2.4 발전 전개 방향

RDA는 웹 기반이 확대되고, 다양한 내용의 자원과 다양한 형식의 용기가 등장함으로써 복잡성이 증가되고,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게 되고, 영역 구분 없이 공유·활용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등의 정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RDA는 이러한 환경적 필요에 따라 목록 규칙 내의 논리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보다 직관적인 방식의 전사방식을 채용하고, 복합적인 자원의 목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사회의 다른 분야와 통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목록 규칙의 한계로 지적되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춘 목록규칙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RDA는 어디서나, 어떤 자원에 대해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작성을 위한 목록규칙을 지향하게 되면서, 이러한 범용적 속성이 RDA를 길고 복잡한 규칙이 되도록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RDA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자원 유형별로 제 2의 보완적인 규칙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공동편목에서 RDA의 표준적인 해석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 (LC-PCC PSs)가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 목록규칙의 발전 추세는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이 복잡성을 더해가는 경향이 있다.

RDA는 국가도서관들의 주도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RDA는 “Strategic priorities for RDA, 2015-2020”을 통해 RDA가 콘텐츠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대표 표준(“the global standard enabling discovery of content”)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우선적인 사업으로 RDA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으로 만들고, RDA의 국제적인 채택을 증진시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RDA Committee of Principals 2014).

반면, 사회적 목록의 목록규칙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 도서관 영역보다 사회적 목록이 시기마다의 정보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해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주제에 관한 목록규칙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착되거나 소멸된다.

3. 부문별 목록규칙의 특성

3.1 목록규칙 작성의 주체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국제적인 서지제어기구와 대규모 도서관, 그리고 정보조직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목록규칙은 내용적으로 개념 모형의 설정, 원칙 개발 등 개념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상세함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RDA는 기존의 목록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고 복잡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rimary Research Group 2013, 68-69). 따라서 목록 작성은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이해하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조 사서들이 외부에서 작성된 목록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쓰는 단순 업무로 취급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목록에서는 목록 및 목록규칙 작성이 모두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목록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목록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활동인데, 이 활동에 참여하는 목록 작성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비전문가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인 LT와 GR의 두 사례는 목록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참여자간 편집 권한에 차별을 두고 있다.

LT에서는 기본적인 목록 작성은 회원 가입

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그의 결합과 같은 좀 더 섬세한 편집 권한은 연간회원 및 평생회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연간회원이나 평생회원은 200권 이상의 편목을 하고자 하여 각각 \$10 혹은 \$25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다. 그런데 “잘(nicely) 말하면 회비 납부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유머가 담긴 LT의 게시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25의 회비 납부 여부가 편집 권한 부여의 핵심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편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200권 이상의 개인 서재를 꾸려나가겠다는 관심과 열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GR의 경우 독특한 것은 ‘Librarian Group’의 존재이다. GR에서 ‘사서’라는 명칭을 부여 받고 싶은 회원은 최소 50권의 책을 개인 서재에 등록하고 사서로 지원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책과 저자에 대한 데이터와 책 표지를 편집하고, 저작의 다른 판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GR은 이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사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작업이 목록 데이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기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목록 작성과 편집을 할 수 있는 LT보다는 GR이 폐쇄적인 방식으로 목록 편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R은 일반 사서 그룹과는 별도로 10여 명의 ‘최고 사서(super librarian)’를 두고 있다. 이들 최고 사서는 일반 사서 보다 더 강화된 편집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자격은 GR의 운영진이 ‘사서’들 중 목록 작성에 크게 기여하는 일부에게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부여한다(GR, “Librarian Manual” 중 ‘About Goodreads

Librarians’).

결국, LT와 GR은 최소 50권~200권의 편목 경험이나 의지, 연간회원이나 평생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 납부, 또는 ‘사서’가 되기 위해 별도의 지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회원에게 좀 더 전문적인 편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편목 경험이 축적되어 목록규칙 작성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2 목록규칙의 형식과 작성 방식

RDA, AACR, KCR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전문가 집단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공식적인 출판 절차를 거쳐 작성된다. 인쇄본과 온라인 버전 등으로 다양하게 발매되기도 하는데, 온라인 버전의 경우 개정되기 이전 판과의 내용적 링크를 통해 신·구판의 내용 참조가 용이하도록 하고, 용어 검색 및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성이 제공되는 추세이다. 또한 액세스 기간과 일부 내용에 제한을 둔 시험 버전이 제공되는 등 목록규칙이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국가적, 국제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제공되기도 한다.

사회적 목록은 공식적인 목록규칙을 바탕으로 목록이 작성되기 보다는, 목록을 작성하는 경험이 쌓여 자연발생적으로 목록규칙과 유사한 지침이 작성되는 과정을 겪는다. LT의 규칙은 목록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다. 운영진이 올린 게시물이 정리되어 규칙이 되기도 하고, 규칙 내에 규칙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토론 그룹의 게시물이 링크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LT에

는 창립자인 Spalding이 제시한 규칙 3가지와 함께 Wiki 메뉴에 'Formatting rules and usage guidelines'이라는 기술 규칙이 작성되었다. Spalding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후 약 2년간 287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규칙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회적 목록의 규칙에서는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목록규칙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형식면에서는 도움말(help) 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질문의 형태로 'Talk'라는 메뉴에서 남겨지면, 그에 대한 답변이 'Wiki' 메뉴의 해당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된다. 목록규칙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작성되면 그에 대하여 여러 댓글이 누적되며 의견이 조율되고 결국 목록규칙과 유사한 내용이 형성되어 나간다.

GR은 사이트 내에 별도 메뉴로 존재하는 'Librarian Manual'이 목록규칙에 해당된다. 2014년 7월 28일에 개정되었다는 공지 이후

'Goodreads Librarians Group discussion' 메뉴의 'Library Manual Additions > Updating the manual!' 게시판에는 2015년 2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117개의 댓글이 달려 추가하거나 개정해야 할 규칙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LT는 내용상 목록규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 블로그나 별도의 메뉴 형식으로 구성된 Q&A, Help, Wiki, Combiners! Group, Common Knowledge 등 다양한 곳에 게시물과 댓글 등의 형식으로 흩어져 존재한다. GR 역시 특정 목록규칙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제시가 질문과 답변, 의견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의 형식으로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종합되어 목록규칙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정확한 목록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백 개의 댓글을 일일이 읽어봐야 하므로 일목요연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목록규칙의 특성 비교

영역 구분 비교 항목	도서관 목록	사회적 목록
본질적 특성	- 안정성, 신뢰성, 통용성 추구	- 책을 매개로 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즐거움 추구
목적	- 자원의 발견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에 필요한 일련의 지침과 규칙을 제공 - 개념 모형, 목록규칙 등에서 선언적으로 정의	- 명시되지 않음
기반 원칙	- ICP - FRBR, FRAD, FRSAD	- 특정한 것 없음 - 도서관 목록의 방식을 취사선택하거나 변형하여 적용
전개 발전 방향	- 국가도서관들의 주도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 경주	-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정립, 발전, 진화, 도태되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목록규칙 작성의 주체	- 공식 위원회(JSC) 등 전문 기관 및 전문가	- LT: 이용자(참여자)와 사이트 운영진 - GR: 'Librarian', 'Super librarian'이라는 자격을 부여 받은 특정 이용자
존재와 작성 방식	-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RDA, AACR, KCR 등	- LT: 블로그나 별도의 메뉴 형식으로 구성된 Q&A, Help, Wiki, Combiners! Group, Common Knowledge 등 - GR: 사이트 내 별도 메뉴로 존재하는 'Librarian Manual'

4. 목록규칙 상세 비교

4.1 분량과 구성

RDA는 총 10부(Section), 37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2014년 개정판 인쇄본을 기준으로 1,052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주제 목록에 관한 3개의 부, 10개의 장이 미개발 상태이므로 분량은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버전인 RDA Toolkit의 경우 이전 판인 AACR2와의 연결, 요소 셋트, 인코딩 표준과의 매핑 등 다양한 관련 자원과 연계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분량은 사실상 인쇄본 보다 훨씬 방대하다.

사회적 목록규칙은 구성과 형식이 비체계적이다. GR의 지침은 2013년 1월 당시 총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이트 이용에 관한 일반 지침 및 목록 작성에 관한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28일에 개정된 사서 매뉴얼은, 총 17개 항목, 6,136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록규칙으로서 이전보다 정리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조적인 면에서 비교했을 때,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AACR이나 KCR과 같이 자원 유형별로 나뉘어 기술과 접근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거나, RDA처럼 서지 세계를 구성하는 개체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체계화되어 왔다.

내용적으로 볼 때, LT와 GR의 목록규칙을 유사한 내용끼리 군집화하여 보면, 도서관의 목록규칙과 마찬가지로 기술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GR의 규칙은 도서관 목록규칙과 유사하게 기술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LT의 경우 태그의 생성과 태그간의 결합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적 목록규칙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영역별로 목록규칙의 구성 내역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부문별 목록규칙의 분량과 구성

구분	목록규칙	분량	구성
도서관 목록	AACR2 (2005 개정판)	• 총 2부, 19~21장 • 750 페이지	• 자원유형별 기술규칙 •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
	KCR4 (2003, 2013)	• 총 12장 • 576 페이지(모체) + 177 페이지(보유편)	• 자원유형별 기술규칙
	RDA (2014, Toolkit)	• 총 10부, 37장 • 1,052 페이지	• 개체별 속성과 150여개의 관계지시어 설정
사회적 목록	LT (2013, 2015)	• 약 24개 항목	• 기술규칙, 태그의 작성과 편집 • 17개의 관계지시어 설정
	GR (2013, 2015)	• 17~33개 항목	• 기술규칙 위주

4.2 총칙

RDA의 총칙은 목록의 목적과 기능, 기반 개념, 논리적인 장절 구조, 관련 개념간의 참조, 이전판과의 관계, 인코딩 방식과의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적용성에 있어서는 가급적 세밀한 목록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서지세계에 표준성과 통용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례별 특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대상과 목표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는 정도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용 여부의 결정시 편목자의 판단을 허용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회적 목록규칙에서 도서관 목록규칙의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LT의 포괄적인 규칙의 사례를 들 수 있다. LT에서 처음 제안한 규칙 3가지는 1) 목록에서 중립적인 관점 유지의 필요성, 2) 선부른 변경에 대한 경계, 3)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한 관대한 태도 촉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palding 2007). 첫 번째 규칙은 LT 목록의 목적이 책을 팔려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인 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규칙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목록 데이터를 너무 경솔하게 수정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세 번 까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revert)'를 허용한다. 세 번째 규칙은 대부분의 회원이 비전문가로서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LT 목록의 핵심이라는 본질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제안으로 시작된 목록규칙은 4가지 포괄적인 목록 작성 지침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1)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용감하게 뛰어들어라, 2)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친절(nice)해라, 3) 위키 편집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라, 4) 변화를 체크하여 지금 현재 유효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LT, "WikiThing"). 따라서 사회적 목록규칙의 총칙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되, 합의된 지침을 참고할 것과, 현재성 있는 방식을 따를 것 등임을 알 수 있다.

4.3 개체의 속성과 관계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모두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 강조해 왔다. 사회적 목록규칙에서도 저작의 표제나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다수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LT와 GR 두 사례 모두 목록규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접근점의 형식에 관해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에서 대표적인 접근점의 역할을 하는 개인과 저작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속성과 관계에 관하여 영역별 목록규칙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4.3.1 개인

1) 속성

RDA는 3부(Section 3)에서 개인명을 식별하고 기록하는 것에 관한 일반 규칙을 '9.1 General Guidelines on Identifying Persons'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규칙은 '9.2 Name of the Person'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핵심 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9.2절은 일반 규칙 3개, 우선형 이름에 대한 규칙 42개, 이형 이름에 대한

규칙 10개 등 최대 3 단계로 구성된 55개에 달하는 세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명의 식별 속성을 기록하는데 필요한 규칙은 RDA 9.3~9.18에 걸쳐 나타난다. RDA 9.2~9.18에 나타나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은 17개로, 이는 인명 전거 데이터 작성을 위해 기록해오던 속성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LT에 나타나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 기술 항목은 'HelpThing' 페이지의 설명 항목을 기준으로 19개가 있다. 이러한 기술 요소들을 위한 LT의 규칙은 개인명의 식별과 기록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을 설정하는 논리성, 처리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4〉의 RDA 핵심 요소는 RDA 0.6.7 Section 3에서 정의된 필수 요소 중 개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9.2~9.18에 걸쳐 정의된 개인 속성 요소들로는 인명의 이형, 성별, 출생지, 사망지, 관련된 나라, 거주지, 주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 전기적 정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다. 결국 RDA에서 개인명의 속성으로 지정된 핵심 요소와 선택 요소를 합쳤을 때 이는 LT에서 지정된 요소와 대체로 유사하다.

GR은 개인명 기술에 대해 철자와 대문자법, 이름과 성의 순서, 이니셜이나 이름에 붙는 접

미사가 있을 때의 구두점, 중간 이름의 포함 여부, 저자명에 부기된 호칭의 생략, 편집자에 대한 저자 취급 방식과 역할어 부여, 여러 이형을 가진 저자명의 정보원과 기입 방식, 복수의 저자와 저작 역할어의 처리, 공저자명의 기입 순서, 판 변경에 따른 저자명의 처리, 부차적 책임성을 지닌 저자의 처리 등 12개의 목록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목록규칙은 체계성을 가지고 규칙으로서 구조화되지 않고 단순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목록 규칙을 구성하는 항목은 도서관의 목록규칙과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목록규칙에서 저작의 책임성을 가진 개인의 식별과 기록에 관한 주요한 논의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저자의 수에 있어서 GR에서는 2015년 11월 현재 최대 50명까지의 공저자를 허용한다(GR, "Books with multiple authors"). 이는 2014년 30명까지였던 것에서 증가된 것이며, 접근점으로 인정되는 저자의 수를 3인 이하로 제한한 AACR2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이지만, 특정한 수를 지정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공저자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되, 방법으로 공저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정의한 RDA나 전거의 영역으로 미뤄놓은

〈표 4〉 개인의 속성 기록을 위한 요소

구분	RDA의 요소	LT의 요소
핵심	인명의 우선 형식, 직함, 생몰일, 개인명과 관련된 호칭, 직업, 식별자 (RDA 0.6.7)	표준 이름(Canonical name), 법적 이름(Legal names), 기타 이름(Other names),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후 안치된 장소, 성별, 국적, 나라, 출생지, 사망지, 거주지, 교육(출신학교), 직업, 관계, 조직, 수상경력, 대리인(agent), 간략한 전기, 중의성 해소를 위한 알립(Disambiguation notice)
선택	인명의 이형, 성별, 출생지, 사망지, 관련된 나라, 거주지, 주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 전기적 정보 (RDA 9.2~9.18)	

〈표 5〉 개인의 식별과 기록에 관한 주요 논의 사항 비교

구분	목록 규칙	도서관 목록규칙	사회적 목록	사회적 목록규칙
공저자 처리	AACR2	• 3인 이하까지만 접근점으로 인정 (AACR2 1.1F5.)	LT	-
	KCR4	• 원칙: 공저자의 수에 제한 없음 • 방법: 필요에 따라 일부 생략 가능 (KCR 1.1.6.2의 7항)	GR	• 50인 이하까지만 기록,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RDA	• 원칙: 공저자의 수에 제한 없음 • 방법: 생략하고 별도 표시 (RDA 2.4.1.5)		
다양한 형식의 저자명 처리	AACR2	• 저자명 기입 간의 참조 구조 설정	LT	• 표준 이름, 법적 이름, 기타 이름 등 필드를 필요한 만큼 추가 • 필명은 모두 기타 이름으로 취급됨
	KCR4	•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RDA	• 9장 전체가 개인의 식별을 위한 속성 기록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됨 -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개인에 대한 우선형 이름 선정(9.2.2.5) - 동일인에 대한 상이한 이름: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선정(9.2.2.6) 등	GR	• 저자 정보(Author profile)에서 다양한 이형을 텍스트 형태로 설명해줌 • 필명은 See also 라는 참조 관계로 연결함 • 판이 변하면서 다른 형식의 저자명이 사용 되는 경우 초판의 저자명 형식으로 고침

KCR4과는 또 다르다. 사회적 목록규칙은 도서관 목록규칙의 정법과 별법의 사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양한 저자명의 처리에 있어서 LT의 저자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한다. 다만, 전역적으로는 여러 이용자들이 통합, 분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을 우선한다. 즉, LT는 개인의 서재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서명이나 저자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LT 사이트 전체에서는 여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가장 상위에 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즉 최상의 형태를 뽑고 나머지는 다양한 이형으로 남겨둔다는 기존 도서관의 논리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LT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이름은 ‘표준 이름(Canonical name)’, 가장 정확한 이름은 ‘법적 이름(Legal

names)’, 필명이나 별명, 무대명 등 기타의 이름은 ‘기타 이름(Other names)’ 필드를 이용하도록 하였다(LT, “Formatting rules and usage guidelines” 중 ‘Canonical title, canonical name’, “Common Knowledge: Names, Relationships and Events”).

2) 관계

RDA에서는 관계 설정에 관해 해당 절에서 설명하고, 개인과 관련된 관계어는 부록 K에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이를 개인 저자를 중심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만으로 한정하여 정리하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개인과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11개의 관계지시어가 제시되어 있다(2015년 4월 14일 기준)(〈표 6〉 참조). RDA는 부록에 제시된 것 이외의 관계어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RDA K.1), 관계어의 종류는 사실상 더욱

〈표 6〉 개인의 관계

개체	RDA 관계	LT 관계	GR 관계
개인 - 개인	- alternate identity - real identity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처남 등 친인척 관계 중심	기술사항으로만 기록됨
개인 - 가족	- family member - progenitor		
가족 - 개인	- descendants - family		
단체 - 개인	- corporate body - employer - founded corporate body - graduate of - officiated corporate body	-	-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RDA 관계어의 상대적인 특징은 LT와 같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가와 같은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가족’이라고 할 것인가 ‘후손’이라고 할 것인가와 같이 관계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관계용어로 설명할 것인가가 보다 부각되어 있다.

사회적 목적의 ‘관계’는 RDA가 설정하고 있는 ‘관계’의 종류 보다는 한결 간단하다. LT의 ‘관계’는 저자의 이름과 성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 이 관계성은 세밀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공저자 혹은 협력 작업을 한 저자 등 어떤 정도의 관계를 어떤 관계어로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범위 제한이 어려운 ‘친구’라는 관계를 허용할 것인지 등 관계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들은 2011년 초부터 시작되어 이에 대한 80여 개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LT, “Common Knowledge: Names, Relationships and Events”).

LT에서도 가족관계를 주요하게 다루지만, 저자의 배우자나 자녀, 다른 친척 등이 역시 작자의 경우를 위해서만 친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추가한다. 이는 저자 대 저자의 관계를 파악하여 저자 페이지의 링크를 생성하려는 의도로 관계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LT는 ‘관계’를 통해 족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LT, “Formatting rules and usage guidelines” 중 ‘Relationships’). 예를 들어, 현직 미국 대통령인 Barack Obama에 대한 서지레코드(Common Knowledge)에는 ‘Dunham, S. Ann(mother)’, ‘Obama, Michelle(wife)’, ‘Robinson, Craig(brother-in-law)’ 등 총 7명의 가족이 ‘관계’ 필드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 LT 데이터베이스에 7명 모두 각각 개별 저자로 목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 대 저자의 관계 형성을 위해 기입된 것이다.

한편, GR은 저자 프로필의 기술사항으로 가족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데이터로 구조화하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이 RDA와 LT의 규칙 모두 개인에 대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동일인에 대한 표기법, 기준이 되는 저자명과 연관된 다른 개인 개체와의 관계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

나 관계를 적용하는 범위와 방식에는 두 영역 간의 차이가 있다.

4.3.2 저작

1) 속성

RDA 6.2절은 표제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이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저작의 표제를 기록하는 기본 지침, 저작의 우선 표제, 저작의 이형 표제 등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RDA는 우선 표제와 이형 표제를 구분함으로써 AACR2에서의 '기본 표목'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에도 우선 표제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표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가장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대표어로 삼는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RDA 6.2.1.1~6.2.1.9에서 저작의 표제를 기록하는 기본 지침은 범위, 정보원, 저작의 표제 기록을 위한 일반 지침, 대문자법, 표제에 포함된 숫자, 발음 구별 부호, 관사로 시작하는 표제, 이니셜과 두문자어에서의 빈칸, 약어 등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규정된다.

이러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LT의 경우 대문자법에 대해서만 "대소문자의 차이를 무시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GR은 정보원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표지에 나타난 그대로"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표지를 정보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의 표제에 있어서도 "표지에 나타난 그대로의 공식적인 표제를 입력하라", 대문자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문자법과 문장부호 사용하라"와 같은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RDA의 9개 항목에 대하여 LT와 GR은 각각 1~3개의 항목에만 해당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도서관 목록규칙에 비해 상세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2) 관계

RDA는 부록 J에서 다양한 저작간 관계지시어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지시어 유형은 RDA J.2.2~J.2.6에서 파생 저작 관계(Derivative Work Relationships), 참조 저작 관계(Referential Work Relationships), 전체-부분 저작 관계(Whole-Part Work Relationships), 동반 저작 관계(Accompanying Work Relationships), 연속 저작 관계(Sequential Work Relationships)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RDA에는 이러한 5개의 유형 아래 총 4개 단계, 150여개의 관계지시어가 설정되어 있다(RDA Toolkit 2015년 10월 기준). 관계지시어는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관계/역관계의 양방향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개념적인 차원에서 관계 유형의 종류는 70여개로 볼 수 있다. 1단계 수준의 관계지시어는 관계/역관계의 쌍으로 보았을 때 8개로 구성되며, 이것이 2~4단계로 세분되어 총 150여개의 관계지시어가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관계지시어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상세한 정도의 관계지시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RDA에 제시되지 않은 관계지시어를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RDA J.1), RDA의 관계지시어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T는 총 17개의 저작간 관계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LT, "HelpThing:Work/Relationships").

〈표 7〉 관계지시어 비교

영역별 관계지시어 RDA 관계유형	RDA		LT
	파생 관계	기본/ 파생	각색
요약			요약
확장			확장
모방			패러디
영감(inspiration)			영감(inspiration)
참조관계	기념(commemoration)		참조 가이드
전체-부분 관계	포함		포함
연속 관계	연속(후속)		연속(후속)
	연속(이전)		연속(이전)
동반 관계	확대	보충	보충
		용어 색인	용어 색인
		지침(guide)	학생 지침 교사 지침
기타	-		개작(Is a retelling of / Is retold in)
	-		논평, 주석(Is a commentary on the text of / Has a commentary on the text)
	-		연구(Is a study of / Has a study)
	-		응답, 회신(Is a reply to / Is replied to in)

이러한 관계 정의와 논의는 “Board for Extreme Thing Advances”라는 비공개 그룹의 활동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LT, “LibraryThing gets work-to-work relationships!”). RDA에서 제시한 관계 유형 5개를 기준으로 하여 LT의 관계지시어와 RDA의 관계지시어를 대응시키면 RDA의 2~4단계 관계지시어 15개가 LT에서 제시된 17개의 관계지시어와 개념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표 7〉은 RDA와 LT간에 매핑되는 관계지시어를 관계/역관계의 쌍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간략화하여 비교한 표이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기타의 관계지시어 4개도 5개의 관계 유형에 개념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DA와 LT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3~15개의 저작간 관계는 단계와 사용된 어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이러한 관계들이 도서관과 사회적 목록규칙에서 설정한 핵심적인 저작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4.4 주제 목록

도서관 목록규칙은 목록 대상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 요소별 지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표목(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규칙도 존재하나 책임표시, 표제명 등 비주제적인 성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관 목록에서 실질적인 주제 접근은 시소러스나 주제명표목, 주

제 분류표 등 별도의 주제 목록 도구의 도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주제 접근에 관한 내용은 목록규칙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RDA는 주제 영역을 별도로 다루는 FRSA라는 개념 모형을 기반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개체를 정의하고, 이의 속성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목록규칙에 주제 영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DA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영역에 대한 목록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제 개체의 속성을 기록하는 4부의 12~16장, 주제 개체의 관계를 기록하는 7부의 23장, 주제 개체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10부의 33~37장 등 총 3개 섹션, 11개 장 중 제 16장의 일부만 2014년 10월 14일 발표되었을 뿐, 나머지 10개 장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15년 4월에는 부록 M: Relationship Designators: Subject Relationships이 작성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미개발 상태였던 제 23장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9개 장의 내용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목록규칙에서 주제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목록의 데이터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태그라는 점을 반영하듯이, LT의 24개 목록규칙 중 7개가 태그에 대한 지침이다. 태그는 개념적으로 기존 도서관 목록의 주제어 보다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갖는다. 하지만, 태그는 대체로 주제 색인의 특정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실제로 의미 있게 사용되는 상위 빈도수의 태그는 대부분 주제적인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목록규칙은 도서관 목록규칙에 비해 주제 목록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태그에 대한 지침은 태깅의 방식이나 종류, 형식 등 태그 자체에 대한 규칙은 아니다. LT의 태그에 대한 지침은 작성법이 아니라 유사 태그끼리 결합할 때에 참조해야 할 지침과 같은 활용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동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태깅이라는 행위나 태그 자체에 대한 규정은 큰 의미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 대중이 작성한 데이터로서 태그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보다 큰 관심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종합분석

5.1 유사성

두 영역의 목록규칙이 가지는 가장 큰 유사성은 디지털 환경을 지향하는 목록규칙으로서의 특성이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Web-OPAC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 형식을 목표로 설계되고, 새로운 구조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RDA는 개체별 속성과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개념 모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LT 역시 저자, 저작 등을 개별 개체 단위로 관리하며 이들 개체는 링크로 연결된다.

둘째, 목록규칙 자체가 웹 기반 도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이다. RDA는 온라인 버전인 RDA Toolkit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규칙이 편성되어 있어 언제나 수정, 갱신될 수 있으며, 구성이나 활용의 측면에서도 인쇄본으로는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사회적 목록규칙도 웹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목록규칙의 개정에 참여하므로 본질적으로 언제나 수정, 갱신될 수 있다.

셋째, 다른 영역과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목표로 한다는 지향점이 유사하다. RDA는 박물관, 기록관, 기타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LT는 도서관으로부터 MARC 데이터를 반입하여 기본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목록 데이터를 지역 도서관, 서점 등과 연계시켜 책을 빌리거나 살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LT에서 생성된 소셜 데이터를 역으로 도서관에 판매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두 영역은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넷째, 표준성 못지않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LT는 가급적 이형을 인정하라는 철학을 표명하고 있다. RDA도 이전의 목록규칙에 비해 편목자의 자율적 판단의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도서관 목록규칙과 사회적 목록규칙의 유사성은 도서관 목록규칙이 RDA로 변경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구조적으로 개체별 속성과 관계가 기본 구조로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내용적으로 주제 목록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은 이전의 도서관 목록규칙에 비해 RDA가 사회적 목록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2 차별성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규칙의 차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목록규칙의 생성 및 진화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 목록은 작성부터 개정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조율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정식으로 공표되며, 적용 시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결정, 세계서지 제어의 통일성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LT와 GR과 같이 대중의 참여와 주도하에 작성된 목록규칙은 규범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생적으로 생긴 규칙들이 규모의 힘에 의해 스스로 정화, 개정되어 나가며, 하나의 사안에 대해 오랜 동안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개정이 이루어진다.

둘째, 목록규칙의 기능과 의도에 차이가 있다. RDA에서는 목록과 목록규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의 달성을 위해 일관된 규칙 전개를 해 나간다. 반면, 사회적 목록규칙은 본질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제시되기 보다는, 협력적으로 작성된 목록 데이터 및 목록 작성 행위를 통해 목록의 기능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진화되어 간다.

셋째, 현재성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공식적인 갱신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목록규칙 작성 당시에 반영된 관념과 가치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보

통이다. 도서관의 목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지적 소산의 재현물로서의 의미와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대한 해당 시점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한 후,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반면, 사회적 목록은 사회와 이용자의 관점과 요구가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 진화하고자 하는 유기체적인 현재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는다.

넷째, 권위의 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 목록은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표자나 대표 기구가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받고, 그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준수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그 결과가 대체로 수용되는 구조로 작동된다. 반면, 사회적 목록에서는 목록규칙 자체가 이용자들의 필요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생성, 발전되고, 그러한 목록규칙의 적용 여부와 그 결과 또한 다수의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 수용, 소멸, 진화, 발전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목록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방식이나 표현이 표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다수결의 법칙이 작동된다. 즉, 규범적으로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표준적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의 목록규칙에서도 관용적인 사용법을 따른다는 일부 지침에서 드러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으나, 사회적 목록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보다 직접적이고 전격적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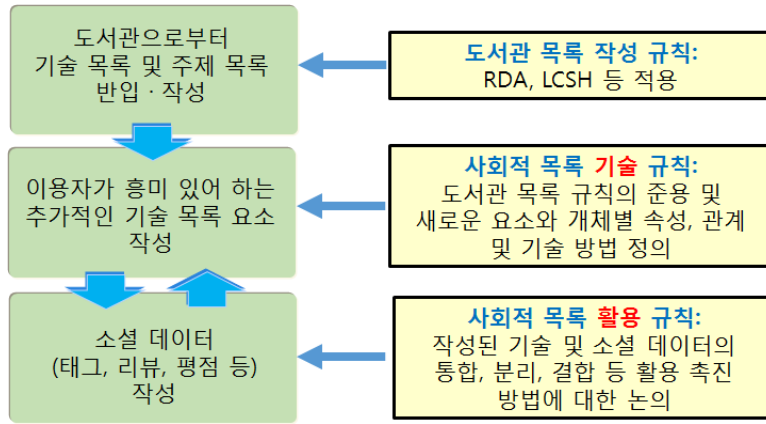
다섯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의 목록규칙이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사회

적 목록은 규칙의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사회적 목록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한다. 도서관 목록규칙은 목록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세밀한 목록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과 목표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는 정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시 편목자의 판단을 허용하는 옵션을 두어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여 왔다. 이처럼 도서관계에서는 각 정보관리 기관이 목록규칙을 상황에 맞게 규범처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국가 내,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서지제어의 표준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자원 공유의 바탕을 삼고자 한다.

반면, 사회적 목록규칙에서는 지침을 만드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적용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다. GR은 “주어진 지침에 가능한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LT는 “(편목을) 즐겁게 하라!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당신이 (목록 데이터들) 망쳐놓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고쳐 놓을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목록규칙을 끝맺고 있다. 이는 다수의 대중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규모의 힘을 믿는 것이며, 지나친 규범의 준수에 대한 강조는 자발적인 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5.3 목록규칙의 단계별 적용성

이상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목록규칙은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회적 목록 형성 단계별 목록규칙의 성격

첫 번째 단계는 도서관의 기술 규칙, 주제명 표목 등 도서관의 목록 작성을 위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목록 작성의 처음 단계에서 기본적인 기술목록 데이터는 도서관의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목록규칙이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 사회적 목록에도 기본적인 기술 목록 작성을 위한 규칙이 존재하지만, 이는 도서관 목록규칙에 비해 양이 매우 적다. 또한 사회적 목록규칙은 도서관 목록규칙과 비교했을 때 정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규칙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 목록 형성의 첫 단계에서는 도서관 목록 작성을 위한 규칙을 주로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용자가 흥미를 느끼는 요소들을 위주로 하여 기존의 기술 목록에 기술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목록규칙을 사회적 목록 기술 규칙이라 칭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목록규칙과 다르게 규정되는 부분이거나 추가적인 속성과 관계의 정

의 및 기술 방법이 주된 내용이 된다. 이러한 요소 정의나 방식은 연역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이용자의 참여가 쌓여 귀납적으로 목록과 목록규칙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태그, 리뷰, 평점 등 소셜 데이터가 작성되는 단계로서 여기서 적용되는 목록규칙은 사회적 목록 활용 규칙이라 칭할 수 있다. LT나 GR의 사례를 보면, 수집, 분석된 사회적 목록의 규칙 중 소셜 데이터의 작성에 관해서는 규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작성된 소셜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상당수의 규칙이 존재한다. 목록규칙으로 목록의 작성 방식을 강제하기 보다는, 일단 자유롭게 목록이 작성되고 난 후,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셜 데이터간의 통합, 분리, 결합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논리와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사회적 목록규칙은 검색 지침을 비롯하여 사회적 목록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는 활용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은 각자의 영역에서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목록규칙은 이러한 상호 작용 관계 및 목록의 형성 단계별로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결 론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은 정보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의 태생적, 기능적 차이점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록규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과 사회적 목록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보조직의 전체 흐름을 조망하고 상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비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목록 작성의 특성상, 사회적 목록규칙은 도서관 목록규칙에 비해 구성과 형식이 비체계적이고 용어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용된다. 목록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참조할만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적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목록규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품질에 차등을 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도서관과 사회적 목록규칙간의 유사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RDA가 이용자의 편의

와 이용자의 정보 이용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회적 목록규칙의 존재 이유 및 내용과 부합된다. 사회적 목록규칙의 구성 자체는 AACR과 비슷하지만 목록 데이터가 구현되는 방식은 RDA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구조화의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두 영역의 목록규칙의 구성과 내용도 상세성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성이 발견되는 부분이 많음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목록의 활성화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정보조직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근래 약 10여 년 간 정보조직 분야는 각각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강화되는 양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목록과 목록규칙의 존재 방식과 운영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도서관 목록 및 목록규칙의 전개와 발전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도서관 정보조직 업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목록과 목록규칙이 도서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도서관 목록과 사회적 목록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협력하고 각 영역이 정보조직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올바른 식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박진희. 2009a. “RDA의 제정동향 및 내용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317-338.
- 박진희. 2009b.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11-138.
- 안서현, 이창수. 2014.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235-261.
- 이경호. 2012. “RDA에 나타난 이용자 과업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99-122.
- 이미화. 2011a.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23-42.
- 이미화. 2011b.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03-121.
- 이미화. 2012.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1-280.
- 이미화, 현문수. 2015. RDA 테스트 분석을 통해 본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155-176.
- 이성숙. 2008. “대학도서관 폭소노미 태그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63-480.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4.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Il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oodreads. 2015a. “Books with multiple authors.” [online]. [cited 2015.11.14]. <https://www.goodreads.com/librarian_manual#AuthorField>.
- Goodreads. 2015b. “About Goodreads Librarians.” [online]. [cited 2015.8.5]. <https://www.goodreads.com/librarian_manual#AuthorField>.
- Harej, Viktor and Maja Žumer. 2013. “Analysis of FRBR user task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1(7): 741-759.
- Hider, Philip and Ying-Hsang Liu. 2013. “The Use of RDA elements in support of FRBR user task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1(8): 857-872.
- Joseph, Deodato. 2014. “The patron as producer: libraries, web 2.0, and participatory culture.” *Journal of Documentation*, 70(5): 734-758.
- Librarything. 2014. Common Knowledge. “Formatting rules and usage guidelines.” [online].

- [cited 2015.2.21].
 <https://www.librarything.com/wiki/index.php/Common_Knowledge>.
- Librarything. 2015. "HelpThing:Work/Relationships." [online]. [cited 2015.1.15].
 <http://www.librarything.com/wiki/index.php/HelpThing:Work/Relationships#Relationships_and_Examples>.
- Librarything. 2015. "LibraryThing gets work-to-work relationships!" [online]. [cited 2015.5.20].
 <<http://blog.librarything.com/main/2011/02/librarything-gets-work-to-work-relationships/>>.
- Librarything. 2015. "WikiThing." [online]. [cited 2015.5.20].
 <http://www.librarything.com/wiki/index.php/Main_Page>.
- Primary Research Group. "The survey of academic library cataloging practices. 2013 Edition." pp. 68-69. [online]. [cited 2013.5.4].
 <[http://primaryresearch.com/uploaded/admin_reports/sample_reports/20130405_123428The_Survey_of_Academic_Library_Cataloging_Practices_2013_Edition_\[EXCERPT\].pdf](http://primaryresearch.com/uploaded/admin_reports/sample_reports/20130405_123428The_Survey_of_Academic_Library_Cataloging_Practices_2013_Edition_[EXCERPT].pdf)>.
- RDA Committee of Principals. 2014. "RDA Governance Review. A discussion document." [online]. [cited 2015.9.26].
 <http://www.rdatoolkit.org/sites/default/files/rda_governance_review.pdf>.
- Spalding, Tim. 2006. "Is your OPAC fun?" [online]. [cited 2015.4.11].
 <<http://blog.librarything.com/thingology/2006/12/is-your-opac-fun-a-manifesto-of-sorts/>>.
- Spalding, Tim. 2007. "Common Knowledge: Rules!" [online]. [cited 2015.9.20].
 <<http://www.librarything.com/talktopic.php?topic=21642>>.
- Spalding, Tim. 2008. "Common Knowledge: Names, Relationships and Events." [online]. [cited 2015.9.20].
 <<http://blog.librarything.com/main/2008/11/common-knowledge-names-relationships-and-events/>>.
- Spanhoff, Elisabeth de Rijk. 2002. "Principle issues: catalog paradigms, old and n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5(1/2): 37-59.
- Svenonius, Elaine. 2000.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Taniguchia, Shoichi. 2013. "User tasks in the RDA-based mode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1(7): 788-81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eohyeon and Changsoo Lee. 2014. "A Study on the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in Cataloging Rul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235-261.
- Lee, Kyung-Ho. 2012. "A Study on the User Task in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99-122.
- Lee, Mihwa and Moonsoo Hyun. 2015. "A Study on Testing the Korean Cataloguing Rules through Analyzing the RDA Te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155-176.
- Lee, Mihwa. 2011a.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 Lee, Mihwa. 2011b.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03-121.
- Lee, Mihwa. 2012.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61-280.
- Lee, Sung-Sook. 2008. "A Study on Form of Folksonomy Tag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463-480.
- Park, Jin-Hee. 2009a. "A Study on Movements to Establish RDA and Its Contents Structur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17-338.
- Park, Jin-Hee. 2009b.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11-138.